

2021-1 Pol In Love 간담회

2017150084 정치외교학과 안준현(사업단장, A조 조장)

2019150069 정치외교학과 박효정(B조 조장)

2019150068 정치외교학과 임 혁(C조 조장)

목차

1. Pol In Love 사업 소개
2. Pol In Love A조
3. Pol In Love B조
4. Pol In Love C조
5. Q&A

1. Pol In Love 사업 소개

- **사업명** : Pol In Love(폴인러브)
- **사업 주체** :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들
- **사업 취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선배님들, 교수님들,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인터뷰 진행하며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선후배 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정치외교학과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조하고자 함.
- **사업 시작 시기** : 2021년 2월

- **1학기 활동** :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3개의 조가 총 9명(8팀)을 만나뵙고,
평균 1시간 정도의 인터뷰 진행 및 식사 자리를 가짐.
- **2학기 활동 계획** : 정치외교학과의 자치 단체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시기에 한승주 교수님, 최상용 교수님 등 원로 명예교수님들을 비롯한 정치외교 명사님들과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2. Pol In Love A조

Pol In Love A조를 소개합 니다!



- 이름 : 안준현
- 학번 : 정치외교학과 17학번
- A조 조장 겸 사업단장 겸임

Pol In Love A조의 인터뷰이를 소개합니다!

1. 송종호 기자님 & 박선경 교

2. 현인택 교수님

수님



1. 송중호 기자님 & 박선

- 인터뷰이교수: **박선경**님

송중호 기자님 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현) 서울경제 정치부 기자

박선경 교수님 약력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뉴욕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 (현)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인터뷰 일시 : 2021. 02. 06. (토)
- 인터뷰 소요 시간 : 약 2시간
- 인터뷰 장소 : 인천 송도 자택

- Q1. 교수님과 기자님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공간인가요?

- (박선경 교수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안암동에서 7년 정도 생활하고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고 나서야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저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외과에서 들었던 수업, 정경관의 공간들이 항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도 고대에 있었을 때의 습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과 사무실을 가야지’ 하고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하는 거요.”

- Q1. 교수님과 기자님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공간인가요?

- (송종호 기자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뿐만 아니라 고대 전체가 그렇지만, 고대끼리 모였을 때는, 정파 간 충돌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특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써, 정의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국민의 힘에서 일하는 선배들, 동기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학문적이고 학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게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어떤 체계에 따른 것인지를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라고 생각합니다.

- Q2.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선경 교수님)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종호 기자님)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평화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야, 정파 또 공부할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도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Q3. 마지막으로 정치외교학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종호 기자님)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90년대생이 온다는 책도 인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눈치를 보고, 걸도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경 교수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안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될 것 같은 것으로 너무 빨리 타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지레 겁먹지 말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 현인택 교수님

- 인터뷰이 소개 : 선배 / 스승/ 명사

현인택 교수님 약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석사
- UCLA 국제정치학 박사
-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부연구위원
- 1995년 ~ 2019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09년 ~ 2011년 제35대 통일부





- 인터뷰 일시 : 2021. 03. 13. (토)
- 인터뷰 소요 시간 : 약 1시간 30분
- 인터뷰 장소 : 강남역 부근 사무실

- Q1. 균형 있는 남북 대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저는 남북 대화를 직접 해본 사람입니다. 실무는 나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를 오케스트레이션 했지요. 남북 대화는 서로의 목적이 일치하면 잘 되지만 일치가 안되면 대화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남북 대화는 이슈와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북 대화는 인도주의적 대화(적십자 회담)와 정상회담(고도의 정치적 목적의 대화)으로 나뉘집니다. 대화 자체도 간단하지 않으며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의 최고 레벨에 있는 장관 등의 고위층이 나서는 대화는 다르니 구별이 되어야 하죠.

(중략)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슈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하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남북 대화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

그렇게 해도 됩

니다. 인도주의적 이슈로 하는 것과 정치 군사에 있어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는 결이 다르

- Q2.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의 평화는 북한과 관련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결국 우리가 북의 위협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위협은 북쪽의 적대적 정권이 가공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 저희를 핵으로 위협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평화인 셈이죠.

민주주의는 만들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제도란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의 진화는 무한하기에 그 끝은 없지

만, 어느 정도의 단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제도

- Q3.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후배들에게 추천할 책이나 조언이 있다면?
- “책은 제 저서인 ‘헤게모니의 미래’를 추천합니다. 제가 교수로서 배우고 느낀 학문적인 요소가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학문 외적으로도 다양한 저서를 읽었는데,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다작과 다독, 그리고 치열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책이 많은 만큼 좋지 않은 책도 당연히 많죠. 따라서 이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보고 읽는 만큼 선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전공 서적에 제한하지 말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 속에서 느껴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